

#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

【지역이슈분석 2011-13】

2011. 11. 18.

## 한·필리핀 경제교류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

### 목 차

I. 검토 배경 .....	1
II. 필리핀 경제동향 .....	2
III. 양국간 경제교류 현황 .....	5
IV.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방안 .....	8



- 2010년 11월, 양국은 수교 61주년에 즈음하여 양국간 중장기적인 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-필리핀 동반 관계 포럼을 개최하는 등 협력 확대 추진해 옴. 한-필리핀 협력확대를 위해 필리핀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인 2011~2016 필리핀개발계획(PDP)에 부합되는 경제협력 및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필리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. 이에 따라 2011년 11월 양국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-필리핀 경제 교류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.

## I. 검토 배경

### □ 한-필리핀 경제교류 확대 필요성 증대

- 한국과 필리핀은 1949년 3월 수교 이래 필리핀 군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등 전통적인 우방 국가로 정치,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간 교류가 전반적으로 확대 발전
  - 2010년 11월, 양국은 수교 61주년에 즈음하여 양국간 중장기적인 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-필리핀 동반 관계 포럼을 개최하는 등 협력 확대 추진
- 2010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된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은 필리핀 국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회적 합의인 사회계약(social contract)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, 국민들과 함께 포용적인 경제성장(inclusive growth)을 추진
- 한-필리핀 협력확대를 위해 필리핀의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인 2011~2016 필리핀개발계획(Philippine Development Plan)에 부합되는 경제 협력 및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필리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
- 2011년 11월 양국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-필리핀 경제 교류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 검토 필요



## II. 필리핀 경제동향

### 1. 국내경제

#### (1) 경제성장

##### □ 필리핀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과 해외 근로자의 송금 등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 기록

- 2003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, 해외근로자 송금 등으로 5% 내외의 양호한 경제성장률 기록
-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,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수요 감소와 민간 소비 위축 및 투자 감소 등으로 2008년 경제성장률이 전년도 7.1%에서 4.6%로 크게 하락
- 2009년 상반기 침체 지속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었으나,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유입 증가와 정부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국내소비 및 투자가 회복세로 전환되어 1.1%의 경제성장률 기록
- 2010년 고정자본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17.1% 증가하는 등 투자가 확대되고 해외근로자 송금도 8.2%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비가 증가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7.6%의 경제성장률 시현
- 2011년 아키노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와 세계 경기 둔화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2011-15년 동안 5%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
#### (2) 물가

##### □ 2009년 하반기 이후 3%대의 물가상승률 유지

- 필리핀은 2008년 주요 식료품 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8.2%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, 2009년 국제 상품가격 하락과 국내 소비 위축



으로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년 이래 최저인 전년동월 대비 0.1% 기록

- 2009년 하반기 중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수요 증가, 국제 유가 및 상품가격 상승, 폐소화 가치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4.2%로 증가하였으며, 2010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3.8% 기록
- 2011년 국제 유가 등 국제상품가격 상승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상승한 4.8%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소비세 부과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

### (3) 재정수지

#### □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 등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 노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 3% 수준

- 필리핀은 취약한 세수기반 및 세무행정능력 미흡에 따른 낮은 세수입과 지역 표심 획득을 위한 정부의 선심성 예산 지출로 1998년부터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기록
- 2002년 GDP 대비 5.2%의 높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긴축정책, 민영화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2007년에 0.2% 수준까지 축소
- 2008년 들어 식료품 가격 급등에 따른 지원 확대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0.9%로 확대되었으며, 2009년에 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감소, 민영화 자산 매각 처리 부진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3.7%로 더욱 확대
- 2010년에 전년도 감세 정책의 영향에 따른 제한적인 세수 확대 및 선거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신임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축소하여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.5%를 기록
- 2011년 들어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인프라 투자 관련 재정지출 감소로 재정적자 비중이 2.0%를 기록할 전망



## 2. 대외거래

### (1) 경상수지

#### □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흑자 및 해외근로자 송금으로 2003년부터 경상수지 흑자 지속

- 필리핀은 전자제품, 반도체 수출이 전체의 60%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, 식료품,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기록
  - 2008년 중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기 침체로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, 주요 수입품목인 원유 및 식료품 가격은 상승하여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53.6% 증가한 129억 달러 기록
- 2010년 들어 상품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가 더욱 크게 나타나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도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유지될 전망

<표 1> 필리핀 주요 거시경제 지표

구 분	2007	2008	2009	2010	2011f
GDP (억 달러)	1,490	1,742	1,683	1,996	2,378
경제성장률 (%)	7.1	4.6	1.1	7.6	4.3
인구 (백만 명)	94.2	96.1	98.0	99.9	101.8
1인당 GDP (달러)	1,580	1,810	1,720	2,000	2,340
실업률 (%)	7.3	7.4	7.5	7.3	7.2
소비자물가상승률 (%)	2.8	8.2	4.2	3.8	4.8
재정수지/GDP (%)	-0.2	-0.9	-3.7	-3.5	-2.0
환율 (페소/미달러)	46.1	44.3	47.7	45.1	43.2
경상수지/GDP (%)	4.8	2.1	5.6	4.2	2.6
외환보유액 (백만 달러)	33,752	37,551	44,243	62,373	83,967

자료: IMF 및 EIU.



- 필리핀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업무처리아웃소싱(BPO)과 관광업 중심의 서비스수지 흑자 및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이전수지 흑자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 지속
- 2010년 화물 운임비용 및 해외여행자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 축소로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4.2%로 축소

## (2) 외환보유액

### □ 2008년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및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라 외환보유액 증가

-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등을 이유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2009년 21억 달러에서 9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, 해외근로자 송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말 기준 약 624억 달러의 외환보유액 기록
-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추이 : 32억 달러('07) → △44억 달러('08) → 21억 달러('09) → 97억 달러('10년)
- 해외근로자 송금 추이 : 144억 달러('07) → 164억 달러('08) → 173억 달러('09) → 188억 달러('10년)

## Ⅲ. 양국간 경제교류 현황

### 1. 교역

#### (1) 교역규모

##### □ 필리핀과의 교역규모는 1990~2010년 12배 증가

- 필리핀과의 교역규모는 1990~2008년 10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2009년 금융위기로 전년보다 감소한 7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, 2010년 수출과 수입 모두 큰 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29.2% 증가한 93억 달러를 기록



\* 양국간 교역규모(단위: 억 달러)

- 7.7 ('90)→51.7 ('00)→55.4 ('05)→81.2 ('08)→72.2 ('09)→93.3('10)

- 2011년 1~9월 교역규모 : 80.6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18% 증가)

## (2) 수출

### □ 1990~2010년 기간중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수출은 11.7배 증가

- 1990년 5억 달러 → 2010년 58.4억 달러
-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, 석유제품, 자동차, 철강판 등으로 2010년 중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31.7%를 차지
-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17대 수출상대국('10, 총수출의 1.3%)

## (3) 수입

### □ 1990~2010년 기간중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수입은 13배 증가

- 1990년 2.7억 달러 → 2010년 34.9억 달러
-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, 원유, 동제품 등으로 2010년 중 반도체가 전체 수입에서 36%를 차지
-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27대 수입상대국('10, 총수입의 0.8%)

<표 2> 한-필리핀 교역 추이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1990	1995	2000	2005	2007	2008	2009	2010
수 출	500	1,493	3,360	3,220	4,420	5,016	4,567	5,838
수 입	270	611	1,815	2,316	2,438	3,099	2,652	3,488
무역수지	230	882	1,545	904	1,982	1,917	1,915	2,350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

#### (4) 무역수지

- 1965~1981년 중 적자를 기록했던 대 필리핀 무역수지는 1982년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

## 2. 투자

### □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투자는 2011년 6월 말 누계기준으로 1,290건, 16.3억 달러 기록 (우리나라 투자의 0.9%)

-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으로 주로 전자부품, 컴퓨터, 식료품 제조업에 투자
- 필리핀에 대한 EDCF 지원은 1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2011년 9월말 기준 총 3,755억원이 승인되어 그 중 989억원 집행

## IV.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방안

### 1. 필리핀의 경제정책 및 투자환경 평가

#### (1) 경제구조

### □ 취약한 제조업 기반이 경제성장의 주요 장애

- 필리핀의 산업구조는 농업 12.3%, 제조업 32.6% 서비스업 55.1%로 제조업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해외근로자들의 송금 및 관광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어 세계 경제 상황에 민감한 경제구조 보유
-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따른 조세회피와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세수율이 낮아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어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





## (2) 경제정책

### □ 단기 육성 전략 산업으로 BPO산업 선정

- 필리핀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전략적 육성 사업으로 콜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BPO(Business Process Outsourcing) 산업을 선정
- 미국식 발음의 영어구사 인력과 저렴한 인건비, 인터넷 기반의 통신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 기대
- 필리핀 정부는 동 산업을 우선투자유치 분야로 분류하고, 최대 외국인지분율을 100%(일반사업 40%)까지 허용하는 한편 소득세, 수출세 등에 대한 면세 및 감세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
- 필리핀의 BPO 산업은 인도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2010년에는 89억 달러의 매출과 52만 명의 고용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

## (3) 투자환경

### □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및 제도의 개선 필요

- 외국인투자 저해 요인은 뿌리깊은 부정부패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, 법규간 상호 모순, 규정 해석의 일관성 결여 등 비효율적인 행정 문제 상존
- GCI 순위 (WEF): 87/133위(2009) → 85/142위(2010) → 75/142위(2011)
- Doing Business 순위 (IFC): 148/183위(2010) → 148/183위(2011)

## (4) 국제신인도

### □ 2010년 이후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

- 2010년 상반기 이후 필리핀의 외환보유액 증가 등 유동성 개선과 아키노



정부의 경제개혁 노력 등으로 국가신용도 상승세 시현

- S&P는 필리핀의 서비스 수지 및 이전 수지 흑자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 확대를 들어 2010년 11월 등급 상향 조정
- Moody's도 아키노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과 필리핀 중앙은행의 강력한 물가 안정화 정책 추진 등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2011년 6월 등급 상향 조정

**<표 3> 필리핀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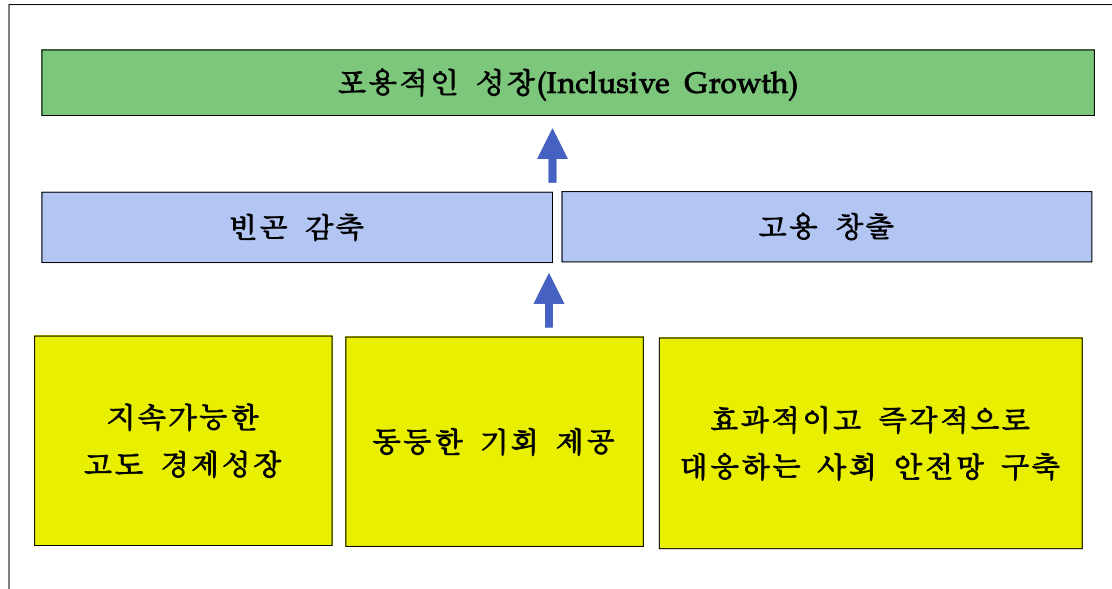
평가기관	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
O E C D	5등급 → 4등급('08.4)
S & P	BB-/Stable('05.1) → BB-/Negative('05.7) → BB-/Stable('06.2) → BB/Stable('10.11)
무 디 스	Ba2/Stable('04.1) → B1/Stable('05.2) → Ba3/Stable('09.7) → Ba2/Stable('11.6)
피 치	BB/Stable('05.5) → BB/Negative('05.7) → BB/Stable('06.2) → BB+/Stalbe('11.6)

## 2. 한-필리핀 경제협력 확대방안

### (1) 필리핀 중기 경제개발계획 적극 참여

-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(NEDA)은 2010년 5월 아키노 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, 시민단체 등 국민의 참여를 통한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2011~2016 필리핀개발계획(Philippine Development Plan)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
- 對필리핀 협력 전략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동력 회복과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에 중점

## &lt; 2010~2016 중기개발계획 3대 전략 &gt;



- 2011~2016 필리핀개발계획상의 제반 정책 목표들을 개발 수요로 보고 한국 정부가 경쟁력 있는 지원 분야를 공급으로 보아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것이 협력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

## (2) 필리핀 BPO산업 육성 지원

- 필리핀의 BPO산업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50%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제조업이 취약한 필리핀 경제의 활력으로 등장
- 주요 사업은 콜 센터, KPO(마케팅 조사, 법률 조사 등), 소프트웨어 개발, 게임 콘텐츠 개발 등
  - 한국도 BPO 산업에 있어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, 필리핀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실현 가능
  - 가칭 “한-필리핀 BPO 센터” 설립 추진



### (3) 필리핀 농공복합단지 (MIC) 개발 계획의 조속 추진

- 필리핀은 농업 부문 및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성장 잠재력이 커서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 파트너 국가로서의 가치 존재
- 한-필리핀 정부간 협력을 통해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에너지, 농기계, 비료 농약 등의 관련 제조업과 녹색 에너지 발전사업, 친환경 레저 산업 등을 포괄하는 복합산업단지(Multi-Industry Cluster: MIC)를 공동 건설 추진
  - 동 사업은 '09.5.30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MIC 설립 타당성 조사 MOU를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
- '11년 4월 실시된 사업타당성 조사에 의해 현재 3개 지역이 후보 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, MIC 개발을 위한 단기(2015년), 중기(2020년), 장기(2025년) 계획을 수립
- MIC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가칭 'MIC 사업단'을 발족하여 관련 개발 사업의 종합적 운영 및 관리를 담당

### (4) 한-필리핀 자원 공동 개발

- 지리적으로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해 있어 금, 니켈, 구리, 크롬철광 등의 광물자원이 매우 풍부하나 투자 부족으로 개발 여력이 큰 상황
  - 구리, 금, 니켈, 크롬철광 등이 대규모로 매장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900만 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나, 실제 개발된 지역은 1.4%에 불과
  -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필리핀 근해지역이 약 220만 km<sup>2</sup>에 달하며 동 지역에도 다양한 광물 자원 개발 가능
- 자원 부족국가인 한국과 개발 자본이 부족한 필리핀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 자원개발을 추진할 필요성 증대



## (5) 한-필리핀 민관협력(PPP) 사업의 활성화

- 필리핀 아키노 정부는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PPP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, 필리핀의 PPP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요 자금은 한국 정부의 EDCF 및 수출신용을 활용
  - 필리핀은 PPP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의 처리절차 간소화, 투명성 강화 등을 정부 우선 과제로 추진
  - 우리기업의 PPP사업 참여시 사업성이 낮아 필리핀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EDCF를 필리핀 정부에 대여하여 정부 출연금으로 활용

작성 :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 
선임조사역 손승호 (3779-5703)  
aojai@koreaexim.go.kr